

## 혼외관계를 사유로 하는 이혼에 관한 연구:

드라마 『부부클리닉 : 사랑과 전쟁』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양 옥 경

(이화여자대학교)

이 기 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박 지 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이 현 영

(아주대학병원)

김 은 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과정)

### [요 약]

정서적 유대가 점차 중요시되는 부부관계에서 혼외관계는 부부간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흔드는 치명적인 이혼사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혼외관계의 상황과 이로 인한 이혼의 현상을 드라마가 어떻게 담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하였다. 최초로 이혼을 소재로 다룬 주간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30회분이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 드라마에 등장하는 부부는 혼외관계 자체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정서 및 의사소통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부장적인 남편과 의존적인 아내라는 전통적인 부부관계의 설정이 가장 자주 등장하였다. 혼외관계의 대상은 결혼 전 애인이 가장 많았으며, 혼외관계유형으로는 남편에게는 '불만족한 결혼생활의 파기수단'이나 '만족한 결혼생활에서의 활력추구'가, 아내에게는 '불만족한 결혼생활에서의 일시도피나 유지수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혼외관계는 부부 모두에게서 '결혼유지기간 6-10년'인 때에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그 동안 사회복지 실천 대상에서 간과되었던 중산층 부부에 대한 사회복지적 재규정 및 새로운 가족개입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일상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속 개인'이라는 사회복지의 핵심영역을 묘사하고 있는 '드라마'를 사회복지 연구에서의 대안적 영역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등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이혼, 혼외관계, 부부관계, TV드라마분석, 내용분석

\* 본 연구는 2003년 이화여자대학교 BK21 뉴 거버넌스 사업의 지원을 받음.

## 1. 서론

가족변화 중 특히 가족해체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수로 여겨지는 이혼<sup>1)</sup>의 급증과 여타 가족문제들은 한국 가족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로써 학문적 우려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의미 해석을 위한 관심이 대중적 관심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이혼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이 과정(장정순, 1994; 김수정·권신영, 2001; 이무영·이소희, 2003)을 거치는 것이며, 이혼당사자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고, 다양한 사회문제와 접점을 이루고 있어 사회복지에서의 주요 관심영역이기도 하다.

이혼사유에 있어서도 혼외관계나 폭행 등 결혼관계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점차 부부간 의사소통이나 이해부족과 같은 부부간의 관계와 정서적 문제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이현송, 1999).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2003년도에는 성격차이(75.7%), 경제문제(27.4%), 가족간 불화(21.7%), 배우자 부정(12.8%)의 순으로 이혼사유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격차이나 경제문제, 배우자의 부정은 전체 이혼사유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통계청, 2003)이다. 이중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재판이혼을 신청한 비율은 약 45%로 1994년 이후 재판이혼 신청사유 중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법원행정처, 2002).

아울러 성격차이로 대표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나 이해부족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로 인한 이혼의 증가는 혼외관계라는 사회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어(공미혜, 2001; 2002; 한정혜 외, 2003)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선정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되기도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혼외관계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양산되어 '불륜드라마'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게까지 하였다. '애인'(1996)이나 '불꽃'(2000)에서부터 최근의 '앞집 여자'(2003)나 '두번째 프로포즈'(2004) 등이 대표적 작품들이다. 이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불륜드라마'가 '애인 만들기'라는 유행을 조장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혼 밖의 성(性)과 사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해졌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대중적 정서를 담보로 유지되는 영화나 드라마는 그 시대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할 뿐 아니라 관객, 시청자의 기대치에 맞춰 내러티브를 생산해 내고 있다(임인숙, 2003)는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서 그 파장은 유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외관계 및 이혼이라는 사회적 이슈는 대중매체를 통해 재생산되어 우리 가족의 일상성에

1) 2003년 이혼통계에 의하면 총 이혼건수는 167,1천 건으로 2002년 145,3천 건에 비하여 21.8천 건(15.0%)이 늘어났으며, 이는 98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일일 평균 약 458쌍이 이혼하여 2003년 조이혼율(CDR)은 3.5건으로 전년도 3.0건 보다 0.5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93년도에 비해 10년간 조이혼율(CDR)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내용면에서도 특 정연령층에서의 이혼율이 아닌, 30세 이후 전 연령층에서의 이혼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 결혼생활의 안정기 이전의 이혼율이 높은 것과 달리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부부의 이혼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통계청, 2003).

새로운 가치와 규범으로 재생산, 수용, 학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중매체가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문화적 규범을 전파하며 우리 삶의 방식이나 행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대중매체가 표현하는 가족의 모습 혹은 혼외관계 및 이혼과 관련한 메시지는 현실에 대한 반영일 뿐 아니라 모방을 자극하여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매체는 역으로 사회구성원의 의식 및 행동에 대한 예측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혼법정에서나 대중매체에서 혼외관계와 관련한 이슈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혼외관계가 결혼관계의 규범을 넘어서는 '일탈'이 갖는 민감성으로 인해 연구대상어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외관계를 주제로 하는 TV 드라마는 가족의 일상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적인 연구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탐색해 볼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즉 드라마로 재현된 혼외관계를 통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부부가 느끼는 결핍과 미충족 욕구를 파악하고, 부부 및 가족관계가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과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한 대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과정으로서의 이혼현상과 그 전이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족변화의 한 축으로서, 혼외관계<sup>2)</sup>를 사유로 하는 이혼이라는 현상을 드라마가 어떻게 담고 있으며, 드라마가 제시하는 다양한 혼외관계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혼에 이르게 되는지 그 전이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이혼현상에 대한 연구 소재로 흔히 채택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다. 드라마를 통한 이혼현상의 객관성과 일상성의 재생산, 또한 드라마를 통해 재연되는 혼외관계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황별로 이혼에 이르는 전이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을 탐색해 봄으로써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2. 문헌 고찰

### 1) 이혼에 대한 태도연구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에 대해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에 대한 개인의 반응경향성을 의미한다. 대개의 경우 이혼에 대한 보수적인 태도는 결혼해체의 억제력으로 작용하여 결혼의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결혼해체를 촉진하는 힘으로 작용(한경혜 외, 2003)한다. 따라서 이

2) 혼외관계란 결혼관계 이외의 대상과 정신적 관계, 성(性)적 관계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들로 간통, 외도, 혼외관계, 혼외 성(性)관계 등이 있다. 간통 즉 혼외 성(性)관계는 결혼관계 이외의 이성과 자발적으로 맺는 육체적 관계로 정의(심영희, 1991)되며, 외도라는 일상적 표현을 하는 경우도 성(性)관계를 기본적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으로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만남을 시작하고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성(性)적 욕구 해소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성(性)적 관계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혼외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한다.

혼에 대한 개인의 보수적인 태도 또는 허용적인 태도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이혼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태도가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한편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행위뿐 아니라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사람은 결혼생활에 시간과 에너지를 덜 투자하고 부부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시도를 덜 하게 되며,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희생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Glenn, 1996; Amato and Rogers, 1999). 또한 이혼에 대한 태도는 이혼 후 적응에도 영향을 미쳐,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보다 자신의 이혼을 도덕적 실패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더 잘 빠지고 덜 행복해한다(Booth and Amato, 1991). 이처럼 이혼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정신건강에서부터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이혼 후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최근까지 국내의 이혼에 대한 태도조사로 이혼에 대한 단순한 선호를 묻는 조사(통계청, 2002)에서부터 이혼과 관련한 특정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한경혜 외, 2002; 2003; 김성희, 2003), 이혼에 대한 태도를 좀더 세분화하여 이혼의도, 시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누어서 분석(이정성, 2001)하고자 하는 연구 등이 있다.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것이 낫다는 식의 이혼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도 및 상황에 따라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통계청, 1998; 2002)하고 있으며, 이때 자녀라는 변수에 의해 이혼결정을 보류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이정화, 2002). 나아가 부부간의 심리 정서적 문제 또는 친족과의 불화 요인으로 이혼을 고려할 때는 자녀가 이혼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할수록 부부간의 심리 정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에 더욱 허용적인 태도 보이고 있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대표적인 이혼억제요인으로 알려져 있던 자녀라는 변수가 더 이상 이혼의 억제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부간의 성(性)적 갈등보다도 심리·정서적인 갈등이 더 중요한 이혼 사유(한경혜 외, 2002; 김성희, 2003)가 되는 등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애정적, 정서적 결혼관계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혼외관계의 일상화와 함께 부부관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해체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 생활에서 혼외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성(性)적 독점성이 깨어지고 정서적 유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위기로 감지되며, 그만큼 용서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혼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 이혼 예측요인 연구

이혼 혹은 결혼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지표를 예측, 발견하기 위한 연구는 두개 차

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나의 차원은 소득이나 교육 기회 등 개인이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연령이나 인종 등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질적인 위치 등으로 대표되는 객관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들이 결혼의 안정성이나 질, 특히 가족의 변화, 부모의 책임감에 있어서의 변화 등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Orbuch, et al., 1996; White and Edwards, 1990)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자원이거나 기회 획득에 제한적인 경우에 이혼율이 높거나, 성공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역할 기대 수준이 낮아서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빈번히, 더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며, 20세 이전에 결혼하거나 종교가 없는 경우(이무영 외, 2003) 더 쉽게 이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으면 이혼 이후의 생활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더 쉽게 이혼을 결정하고, 실직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관계를 해체하는 변수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자녀수가 적을수록(김병찬, 1996; 이무영 외, 2003에서 재인용), 30-34세가, 결혼 7-9년차 때 가장 높은 이혼율(통계청, 2003)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혼의 억제요인으로는 이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출,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종교적 제약, 주변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력, 자녀들에 대한 감정(Levinger, 1979) 등을 들고 있으며, 특히 주변사람들의 영향, 배우자의 친구나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이들이 이혼에 반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Levinger, 1979; 이무영 외, 2003) 등이 제시되고 있었다.

다른 차원의 연구들은 결혼생활의 유지 또는 파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배우자간의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원의 연구결과는 부부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성공적인 경험을 한다면, 결혼을 유지하고 이혼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서로가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Cartenson, et al., 1995)를 유지하려 할 것이며,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Gottman, 1994)하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게 될 것(Markman, 1991)이며, 서로의 애정을 재확인(Veroff, et al., 1995)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Fincham and Bradbury, 1993). 또한 일과 가정 내 역할을 성공적으로 조정, 통합(Tallman and Riley, 1995; Orbuch and Eyster, 1997)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을 잘 다루어내며, 배우자에게 비판적이지 않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과 부부간 협력 과정이 결혼의 안정성과 행복을 유지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밖에 부부관계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 지속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결혼관계의 지속이나 해체에 영향을 미치며, 과거 결혼관계에 투자한 수준을 이혼의 주요 제어요인(Rusbult, 1983)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이외의 대인관계의 질이 부부관계를 해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기준이 된다는 연구(Levinger, 1979)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혼에 대한 고려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이혼시도 및 결정을 예측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 3) 혼외관계 관련 연구

기존 혼외관계 관련 연구들은 결혼생활에서 혼외관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

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Reibstein and Richards; 이영숙·박경란·전귀연, 2000에서 재인용). 첫째, 혼외관계가 결혼생활의 불만족에 의해 유발되며 결혼의 정당성을 침해한다고 보는 경우, 둘째, 개방결혼의 시각에서 혼외관계를 결혼생활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관계로 보고 인정하는 경우, 셋째, 결혼생활의 본질을 수용하여 혼외관계를 결혼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특히 대중적 인식은 주로 첫 번째 관점을 채택하여 혼외관계를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수단적으로는 혼외관계를 통해 결혼생활을 유지, 향상시키려는 의도 혹은 목적을 갖는 경우에 주로 머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외관계를 시도하게 된 계기나 결과를 포함하는 과정을 유형별로 분류(공미혜, 2002)하면 다음과 같다. (1) 불만족한 결혼생활 또는 어떤 계기에 의해 일시적인 혼외관계를 가지지만 혼외관계에 대한 사회적 부정과 자신의 수동성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이다. (2) 불만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제로서 혼외관계를 가지는 경우이다. (3)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미 멀어진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혼외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4) 전반적으로 만족한 결혼생활이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외관계를 통해 열정이나 삶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혼외관계를 병행하는 경우이다.

한편 결혼생활의 과정 및 그 결과로서의 혼외관계를 설명할 때,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보다 많은 기여를 했다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혼외관계를 배우자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불만족한 배우자는 그 관계를 끝내기 위해 혼외관계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개인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를 잡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Brown, 1991; Sprecher, 1998).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혼외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회복, 보상하려는 하나의 방법으로 분석한다.

혼외관계에서 남녀 간의 성별차이가 두드러진다(이재경, 2000). 대개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혼외관계에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Seal, et al., 1994), 일단 혼외관계를 가지면 남성보다 정서적으로 더 몰입하고, 지속적인 관계(Sprecher et al, 1998)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혼외관계는 정서적 만족감을 구하기 위한 통로로 작용하여, 결혼생활의 만족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안 될수록, 부부 상호간에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남성 주도의 부부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혼외관계의 비율이 높다(남은주, 1998). 남성과의 정서적 거리감과 대화부족에 불만을 느끼던 여성이 대화, 공통의 취미생활, 상대에 대한 이해심이 있는 이성과의 정서적 교감(공미혜, 2001)과 '우정'을 추구(Lawson, 1996) 한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혼외관계로 인한 가장 큰 보상은 성(性)적 만족감보다는 심리적 충족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남성들은 혼외관계를 통해 성(性)적 만족감을 얻었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남은주, 1998).

이밖에 혼외관계와 자아발견(Lawson, 1996)의 관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여성들은 혼외관계를 자아발견의 계기로 삼는 반면, 자아발견을 위한 여정으로 간통이나 혼외관계를 생각하는 남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혼외관계의 경험이 자아발견<sup>3)</sup>의 계기가 되

3) 이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전까지 자신의 욕구와 의지대로 살지 못한 남성의 '자아 찾기'에 의미를 둔 드라마, '푸른 안개(KBS, 2001)'와 같은 설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7.1%)보다 오히려 남성(15%.1)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남은주, 1998). 여성의 경우 혼외관계가 적극적인 자아발견의 계기라기보다는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에 재함몰되는 과정(공미혜, 2001)이라는 분석은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것이다. 나아가 부부관계에서 가부장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한국사회에서, 혼외관계는 일시적인 정서적 교감을 통해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잠시 잊게 해줄 뿐, 여성의 삶의 질이나 권력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불행한 결혼생활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히려 여성들이 자신을 사랑받는 대상으로서 성(性)적 대상화시키는 과정(임인숙, 2003)이지, 자아복원이나 새로운 자아구축의 과정이 아니라는 강도 높은 비판적 시각도 있다. 이같은 혼외관계를 유발시키는 요인은 기존연구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Shackelford and Buss, 1997; Treas and Giesen, 2000; 이영숙 외, 2000). 불행한 결혼생활, 배우자와의 성(性)적 부조화, 도덕성 결여, 성(性)인식의 개방, 사회활동을 통한 새로운 관계형성 기회의 증가 등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이혼을 단일변수로 예측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으며, 특히 객관적 지표를 통한 이혼사유 분석의 맹점을 시사한다. 이혼사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격차이'라는 것에 대해 임상가들은 임상사례를 들며 '성(性)의 격 차이'로 환원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부간 성격차이를 정서적 유대를 배제한 채 성(性) 문제, 성(性)적 욕구불만족이라는 부분만을 부각시키는 설명이 오히려 한국사회의 성(性)에 대한 이중적 태도나 비정상적인 성(性)에의 몰입과 집착 등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혼외관계로 인한 결혼관계의 해체를 분석하는 시각도 자칫 선정적이거나 단편화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편적 시각을 경계하면서, 혼외관계가 이혼사유로서 그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정서적 친밀감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의미가 재구성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혼외관계의 유발과 진행과정, 그리고 이혼이라는 결혼해체의 과정을 드라마가 어떻게 설명하고 합리화하는지 아래의 연구 질문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 4) 연구 질문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혼외관계 사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묘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혼의 전이과정과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역동은 어떠한가?

### 3.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분석대상은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sup>4)</sup> 중 혼외관계를 주 내용으로 다룬 사례이다. 이 드

라마는 1999년 10월부터 2004년 10월 현재까지 KBS TV에서 방영되면서, 이혼을 직접적인 소재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사유의 다양성을 놓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왔다. 드라마의 주요구성은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법정에 선 부부들의 갈등상황 경험의 제시와 이에 대한 중재위원들의 중재 소견의 제시로 짜여 있다. 이후 시청자들이 각각의 사례별로 이혼 찬반여부를 ARS 등을 이용하여 의견 표명을 하면, 그 결과를 다음 회기에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고무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연구를 위해 우선 자료수집 시작 시점인 2003년 9월까지 방영된 총 202회분에 대해 일차 주제 분석<sup>5)</sup>을 하였다. 회기별로 드라마 전개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중복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부의 심리·가치갈등 관련 주제 110건(32.5%), 혼외관계 관련 주제 64건(18.9%), 친족과의 갈등 관련 주제 44건(13.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사유에서 다른 유형의 사유의 근간을 이루는 심리·가치갈등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였을 때, 혼외관계가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였다.

<표 1> 드라마 주제 구분

건(%)

주제 구분	전체	
	빈도(건)	비율(%)
심리, 가치 갈등	110*	32.5
혼외관계	64**	18.9
친족 갈등	44	13.0
학대, 폭력	27	8.0
정신질환	26	7.7
경제적 문제	21	6.2
자녀양육	14	4.1
불임	12	3.6
성(性) 문제	10	3.0
신체질환	10	3.0
합 계	338***	100.0

\* 중복되는 주제를 포함한 전체 사례 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주제 유형 중 혼외관계를 주제로 하는 내용 64건 중 인터넷 VOD(Video On Demand)를 통해 접근 가능한 44회분에 대해 전체 드라마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 4) 드라마 제작팀은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3쌍이 파경을 맞고 있는 현실에서 부부사이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드라마로 재구성해 보여주고, 이를 화해 조정하는 클리닉 과정을 통해 결혼의 진정성과 morality를 모색하고 사회적 담론을 이끌며, 성 주체성의 건강한 회복을 도모하여 부부 재발견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공존의 rule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획의도를 밝히고 있다 (<http://www.kbs.co.kr/2tv/enter/lovewar/plan/plan.html>). 이러한 기획의도를 드라마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드라마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 5) 일차 주제분석은 KBS TV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회기별로 약 2페이지 분량으로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방송 홍보용 시놉시스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혼외관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함정’<sup>6)</sup>이나 ‘압력’<sup>7)</sup>에 의한 비자발적 혼외관계 등의 내용을 제외하였고, 나머지 30회분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방법

연구질문에 대한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방법 중 미디어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sup>8)</sup>이며, 그 중에서도 TV 드라마분석이다. 드라마를 통해 표현되는 혼외관계의 다양한 유형과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 그 결과 결혼관계의 해지를 위해 이혼법정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인 혼외관계를 사유로 하는 이혼이라는 전이과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내용분석은 기본적으로 분석대상과 분석단위의 선정, 분석유목의 결정, 부호화, 자료 분석의 4가지 중요 절차를 거친다. 이상의 범주와 내용에 대해 양적으로 분석내용의 출현빈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줄거리 내에서 분석내용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드라마의 내용, 즉 텍스트 속에서 찾아내도록 하였다. 한편 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들이 정해진 부호화 절차에 의해 부호화하였으며 분석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자간 교차분석을 하였다. 즉, 몇 차례에 걸쳐 인터넷 VOD 화면을 보면서 장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만을 중심으로 종합하여 분석하였다.<sup>9)</sup>

문헌 고찰을 토대로 첫째,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가족구조, 결혼유지기간, 자녀발달단계,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 원가족과의 관계, 지지체계), 둘째, 직장생활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직장에서의 기능수준, 여가활동패턴), 셋째, 혼외관계의 발생과 경과(혼외관계의 상대, 접촉계기, 접촉빈도, 혼외관계 유지 의지의 유무), 넷째, 부부의 갈등해결방식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접촉하는 사회적 지지망의 특성과 이들의 혼외관계 및 이혼에 대한 태도, 다섯째, 이혼청구자, 이혼청구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 이혼조정위원들의 조정내용 등을 기본 분석틀로 채택하여 유목화 하였다. 분석은 인터넷 VOD를 시청하면서 위에 제시한 내용의 항목으로 구분된 1차 분석기록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필요시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드라마 전개를 통해 추정 가능한 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부부간의 인식의 차이 혹은 불일치를 반영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항목은 부부 각각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기본 분석틀의 내용을 정독하면서, 의미와 맥락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VOD를 재시청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상의 작

- 6) ‘함정’에 의한 것은 결혼 전 애인이나 이웃, 스토키 등으로 묘사되는 인물들이 일방적으로 상대의 결혼생활을 파괴할 목적으로 배우자의 오해를 유발 및 유혹하는 상황이다.
- 7) ‘압력’에 의한 것은 배우자나 권력관계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상대로부터 경제적 이유 혹은 남편의 승진을 위해 성매매 혹은 성상납의 압력에 의해 혼외성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이다.
- 8) 미디어 내용분석은 미디어내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나 조직과 같은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한 것을 추론하게 하고, 수용자의 요구와 조직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추론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 9) 드라마의 시나리오 전개방식에 있어 부부관계나 혼외관계, 부부간 의사소통방식이나 문제해결방식 등이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설명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분석자간 불일치의 문제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할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분석항목 및 구분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항목

분 석 항 목		구 분 내 용
인구 사회 학적 특성	결혼력	1. 초혼, 2. 이혼경험, 3. 사별경험, 4. 기타(기술)
	현결혼 유지기간	1. 1 - 5년 이하 2. 6 - 10년 이하 3. 11 - 15년 이하 4. 16 - 20년 이하
	가구구성	1. 부부, 2. 부부+자녀, 3. 부모+부부+자녀, 4. 부부+형제, 5. 주말부부
	부부의 직업	1. 회사원, 2. 전문직, 3. 자영업/경영인, 4. 전업주부, 5. 무직
	자녀발달단계	1. 아동기, 2. 청소년기, 3. 성인기
	자녀와의 관계	1. 문제없음, 2. 문제없음
부부 관계 및 부부의 사회적 역할 기능 수준	부부관계에 내재된 문제	1. 성(性)문제, 2. 경제적 문제, 3. 정서적 문제, 4. 의사소통상의 문제, 5. 법적 문제, 6. 건강문제, 7. 기타
	내재된 문제의 귀인	1. 남편, 2. 아내, 3. 모두
	부부간 친밀감 문제의 유무	1. 문제없음, 2. 문제 있음
	결혼관계를 위한 헌신	1=예, 2=아니오
	결혼관계를 위한 과거투자	
	사회적 역할 구분	배우자 역할, 가족 내 역할, 다른 대인관계, 직업적 역할
	문제유형	1. 권력형, 2. 양가감정형, 3. 책임형, 4. 의존형, 5. 상실형, 6. 고립형, 7. 희생형
	문제의 유무	1. 문제없음, 2. 문제 있음
	문제의 지속기간	1. 1년 미만, 2. 1-5년, 3. 5년 이상
	대처지표	1. 적절한 대처기술, 2. 부적절한 대처기술
혼외 관계 및 이혼 관련 특성	혼외관계대상	1. 결혼전애인, 2. 직장상사 또는 부하직원, 3. 친구, 4. 이웃, 5. 불특정/일인, 6. 불특정/다수
	혼외관계대상 접촉세기	1. 사회적 관계, 2. 인터넷, 3. 전화방, 4. 기타(기술)
	혼외관계시점 및 유지기간	1. 결혼이전/1년미만, 2. 결혼이전/1년이상 3. 결혼이후/1년미만, 4. 결혼이후/1년이상
	혼외관계유형	1. 불만족한 결혼생활에 대한 일시도피 2. 불만족한 결혼생활 유지수단 3. 불만족한 결혼생활 파기수단 4. 만족한 결혼생활 활력추구
	이혼에 대한 대안	경제적 자립자신/ 사회생활자신/ 경제적 문제를 해결자신 /애정적 파트너와의 관계 확보자신 등 4영역으로 구분
	주변의 이혼에 대한 태도	1. 있음 2. 없음 1.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반대/부정적 시각, 2. 새로운 인생제안/공정적 시각, 3. 영향요인/인물 없음, 4. 기타(기술)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드라마의 회기별로 등장하는 주인공 부부의 결혼력, 결혼유지기간, 직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자녀의 발달단계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혹은 성인으로 등장하는 것을 각각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구분하였다.

(2) 부부관계 및 부부의 사회적 역할기능 특성

부부관계의 특징은 부부관계(혼외관계 이전부터의 부부관계)에 내재된 문제의 유형과 귀인, 그리고 부부간 친밀성에서의 문제 유무<sup>10)</sup>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결혼에 대한 부부의 만족,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친밀감, 상호의사소통, 헌신, 대인관계, 과거투자 및 이혼장애요인, 주변사람들의 영향, 비교수준, 성차 등이 일반적으로 결혼관계의 유지와 해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경성, 2001)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부부간의 인식의 차이 혹은 불일치를 반영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부부를 단위로 하면서, 부부 각각에 대해, 결혼관계를 위한 헌신유무,<sup>11)</sup> 결혼관계를 위한 과거의 심리적, 경제적 투자유무<sup>12)</sup>를 지표로 삼았다.

부부의 사회적 역할기능은 배우자로서의 역할, 배우자 이외의 다른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다른 대인관계, 직업적 역할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4가지 영역의 사회적 역할별로 문제유형,<sup>13)</sup> 문제유무, 지속기간, 대처수준을 분석하였다. 사회적 역할수행 상의 문제의 심각성은 '문제없음'과 '문제있음'으로 평가하였는데,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사회적 역할 기능 유형별로 주변 환경과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지, 그로 인해 자신이나 주변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처지표는 주인공들이 자신의 내적자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하는 것으로, 문제 상황에 적절한 대처방법을 동원하여 문제해결 혹은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대처'와 '부적절한 대처'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지속기간을 통해 문제가 얼마나 오

10)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친밀감은 관계를 이루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 또한 관계만족과 더불어서 관계의 지속과 해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Berg and McQuinn, 1986; Huston, et al., 2001)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애정이나 친밀감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연구대상의 한계를 감안하여 드라마의 전개를 통해 드러나는 부부간 애정이나 친밀감 문제의 유무를 파악하고자 한다.

11) 결혼생활에 대한 헌신(Commitment)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에 심리적으로 애착을 느끼는 경향(Rusbult, 1983)이나 관계에 대한 의존감(Rusbult and Buunk, 1993) 혹은 앞의 두 요소와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기도 한다(Johnson, 1982). 한편 이경성(2001)은 기존의 헌신의 정의 가운데 관계에 대한 애착은 애정과 상당부분 중복되며, 개입을 구성하는 다른 두 요인의 선행변인의 성격을 지닌다는 분석하에 애착의 요소를 제외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힘', 즉 '관계에 대한 의존감과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책임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정의를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12) 투자는 이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서 관계에 개입되게 하는 중요한 요인(Rusbult, 1983)으로 다루어져 왔다. 투자는 내적 투자와 외적 투자로 구분되는데, 내적투자는 시간이나 정서적 노력 및 자기노출처럼 관계에 직접 투입하는 자원을 말하며, 외적투자는 서로의 친구나 공유기억 혹은 공유재산 등 관계와 얽혀서 연결되는 외적 자원들을 의미한다.

13) 사회적 역할 기능 수행상의 문제유형은 임상사회복지분류체계(2001) 참조.

래 지속되었는지 또는 문제가 얼마나 새로운지에 따라 개입의 긴급성 혹은 문제의 만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 (3) 혼외관계 및 이혼 관련 특성

혼외관계 및 이혼관련 변인으로 혼외관계와 관련된 특성(혼외관계의 대상, 혼외관계의 대상과 최초의 접촉을 하게 된 사회적 맥락, 혼외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유지기간, 혼외관계 유형), 이혼에 대한 대안(경제적 자립의 자신감,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 예기되는 경제적 문제 해결 가능성, 이혼 후 현재의 혼외관계 대상자와 안정적인 관계의 확보 및 유지 가능성), 주변의 이혼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혼외관계유형은 공미혜(2002)의 분류를 활용하였다.

## 4. 결과분석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총 30편에 나타난 부부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혼경험이 있는 남편 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초혼의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어 최근 재혼, 재혼의 이혼 등이 증가하고 있는 통계적 현실이 극화되어 나타나지는 않고 있었다. 드라마에 나타난 부부의 직업은 남편의 경우 '자영업/경영인'이 43.3%로 가장 많았고, 아내는 76.7%인 23사례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 역시 최근 혼외관계의 증가요인이 여성의 사회진출을 통한 이성과의 접촉기회증대라는 해석과는 다른 형태로 묘사되고 있었다. 결혼유지기간은 '6년 이상 10년 이하'가 53.3%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혼예방을 위한 노력이 결혼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가구구성원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73.3%으로 나타나 혼외관계로 인한 부부 갈등시 이를 중재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확대가족 체계가 없는 구조로 묘사되고 있었다.

〈표 3〉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건(%)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결혼력	남편	초혼	결혼유지기간	1 - 5년 이하	7(23.3)	
		이혼경험		1(3.3)	6 - 10년 이하	16(53.3)
	아내	초혼		11 - 15년 이하	5(16.7)	
		이혼경험		-	16 - 20년 이하	2(6.7)
직업	남편	회사원	가구구성원	부부	3(10.0)	
		전문직		7(23.3)	부부와 자녀	22(73.3)
		자영업/경영인		13(43.3)	부모, 부부, 자녀	1(3.3)
		무직		1(3.3)	부부와 형제	1(3.3)
		아내		전업주부	23(76.7)	주말부부
	전문직			3(10.0)	기타	1(3.3)
	자영업/경영인			4(13.3)	자녀발달단계	아동기
			청소년기			5(16.7)
			무자녀			4(13.3)

## 2) 부부관계 및 부부의 사회적 역할기능 특성

부부관계의 문제 유형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적 문제’와 ‘의사소통 문제’가 각각 52.9%, 33.3%로 전체문제 유형의 86%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두 문제 유형 모두 ‘남편’의 귀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 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관련 문제나 경제적 문제는 각각 9.8%와 3.9%로 대체로 낮은 비율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혼외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부부문제에 있어 육체적 관계보다는 정신적 유대감이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이혼 결정요인으로서 부부관계에 내재된 정서적 문제와 이에 따른 의사소통 문제로 조사된 다른 선행연구(한경혜 외, 2002; 김성희, 2003)를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부부친밀감에 있어서는 86.7%에 해당하는 26사례가 ‘문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 부부관계 문제에서 정신적 유대감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부부관계문제 및 친밀감

건(%)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부부 관계 문제	정서적	남편*	12(44.4)	부부 친밀감에서의 문제유무	있음	26(86.7)
		아내*	3(11.2)			
		모두*	12(44.4)			
		계**	27(52.9)			
	의사소통	남편	10(58.8)			
		아내	3(17.7)			
		모두	4(23.5)			
		계	17(33.3)			
	성관련	남편	3(60.0)		없음	4(13.3)
		아내	-			
		모두	2(40.0)			
		계	5(9.8)			
	경제적	남편	2(100.0)			
		아내	-			
		모두	-			
		계	2(3.9)			
총계		51(100.0)	계	30(100.0)		

※ 부부관계문제의 경우 중복응답 처리하였고 각 변수 내용별 비해당 사례는 제외하였음.  
 \* 각 변수내용별 ‘남편’, ‘아내’, ‘모두’에 적용된 백분율은 각 변수내용별 ‘계’에 대한 백분율을 적용하였음.  
 \*\* 각 변수내용의 ‘계’에 적용된 백분율은 모든 변수내용별 계를 합산한 ‘총계’에 대한 백분율을 적용하였음.

이혼의 제어 요인인 결혼생활에 대한 헌신과 결혼생활을 위한 과거투자의 경우(〈표 5〉) 두 변수 모두에서 아내의 헌신과 투자 빈도가 남편의 헌신과 투자 빈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표 5〉 부부간 결혼관계를 위한 헌신도

건(%)

변수	구분	남편	아내
결혼생활에 대한 의무감 및 책임감	예	14(46.7)	25(83.3)
	아니오	16(53.3)	5(16.7)
결혼생활을 위한 과거투자	예	16(53.3)	25(83.3)
	아니오	14(46.7)	5(16.7)

〈표 6〉은 부부의 사회적 역할기능 수행을 부부역할, 가족역할, 대인관계기능, 직업기능의 네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다. 사회적 기능수행에서 남편은 사적 체계인 부부 및 가족 내에서는 주로 ‘권력’형(43.3%)의 기능수행을 하는 반면 다른 대인관계나 직업기능수행에 있어서는 책임형이 우선하였다. 반면에 아내는 모든 사회적 기능수행에서 ‘의존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기존의 가부장적 요소가 아직도 부부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갈등에 대한 개입에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성인지적 접근이 도입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드라마에 나타난 부부간 역할기능 수행 상 문제 유무는 네 차원 모두 적게는 33.3%에서 많게는 93.3%수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지속기간은 ‘5년 이상’ 유지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혼외관계로 인해 이혼에 이른 부부 사례의 상당 부분이 만성화된 사회적 기능수행 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이에 대한 대처기술은 50%이상이 부부 및 가족역 할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대처’ 수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 및 가족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체계의 도움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6〉 사회적 역할기능수행

건(%)

변수	구분	부부역할기능		가족역할기능		다른 대인관계기능		직업기능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문제유형	권력형	13(43.3)	3(10.0)	13(43.3)	3(10.0)	-	-	1(3.3)	1(3.3)
	양가감정형	6(20.0)	5(16.7)	3(10.0)	1(3.3)	-	2(6.7)	2(6.7)	1(3.3)
	책임형	6(20.0)	4(13.3)	10(33.3)	4(13.3)	15(50.0)	5(16.7)	7(23.3)	7(23.3)
	의존형	2(6.7)	13(43.3)	2(6.7)	9(30.0)	-	4(13.3)	1(3.3)	-
	상실형	1(3.3)	-	1(3.3)	-	-	-	-	-
	고립형	-	2(6.7)	-	2(6.7)	-	2(6.7)	1(3.3)	4(13.3)
	희생형	-	2(6.7)	-	3(10.0)	-	1(3.3)	-	-
	비해당	2(6.7)	1(3.3)	1(3.3)	8(26.7)	15(50.0)	16(53.3)	18(60.0)	17(56.6)
계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문제유무	있음	28(93.3)	27(90.0)	28(93.3)	22(73.4)	15(50.0)	14(46.7)	10(33.3)	13(43.3)
	없음		3(10.0)	2(6.7)	1(3.3)	-	-	2(6.7)	-
	비해당	2(6.7)	-	-	7(23.3)	15(50.0)	16(53.3)	18(60.0)	17(56.6)
	계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지속기간	5년 이상	13(43.3)	14(46.7)	15(50.0)	11(36.7)	4(13.3)	4(13.3)	4(13.3)	3(10.0)
	1년이상 - 5년미만	8(26.7)	5(16.7)	5(16.7)	4(13.3)	1(3.3)	1(3.3)	4(13.3)	4(13.3)
	1년미만	7(23.3)	8(26.6)	8(26.6)	8(26.6)	10(33.4)	9(30)	2(6.7)	6(20.0)
	비해당	2(6.7)	3(10.0)	2(6.7)	7(23.3)	15(50.0)	16(53.3)	20(66.7)	17(56.6)
	계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대처지표	적절한 대처기술	11(36.7)	9(30.0)	13(43.3)	8(26.6)	13(43.3)	10(33.3)	7(23.3)	13(43.4)
	부적절한 대처기술	16(53.3)	18(60.0)	16(53.4)	15(50.0)	2(6.7)	4(13.3)	3(10.0)	-
	비해당	3(10.0)	3(10.0)	1(3.3)	7(23.3)	15(50.0)	16(53.3)	20(66.7)	17(56.6)
	계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30(100)

### 3) 혼외관계 및 이혼 관련 특성

〈표 7〉에서 혼외관계 귀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편’이 귀인인 경우가 50%로 ‘아내’(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편이 ‘혼외관계를 맺음에 따라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부인이 혼외관계를 맺어 결

국 부부 둘 다 혼외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도 16.7%에 달했다. 혼외관계 대상은 대체로 다양한 유형으로 설정되었으나 '결혼 전 애인'(23.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묘사되었다. 혼외관계 유지기간은 '결혼 이후에 시작되어 1년 미만의 유지기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경우가 53.3%였으며 '결혼이후에 시작되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30%로 나타나 혼외관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혼외관계유형으로는 남편의 경우 '만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활력소를 추구하는' 수단인 경우가 30%, 아내는 '불만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가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혼외관계유형의 2, 3위를 부부별로 살펴보면 아내의 경우 남편과 달리 현재의 불만족스런 가정생활을 파기하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대처수단으로 혼외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부간 정서적 문제나 의사소통의 문제를 비롯하여 인식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부대상의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7> 혼외관계 관련 특성

단(%)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혼외 관계 귀인	남편	15(50.0)	혼외관계 시작시점	결혼이전	5(16.7)	
	아내	9(30.0)		결혼이후	25(83.3)	
	남편으로 시작하여 아내까지 부부동시	5(16.7)	혼외관계 유지기간	결혼 이전	1년미만	4(13.3)
		1(3.3)			1년이상	1(3.3)
결혼전애인 직장상사/부하 친구 이웃 불특정 다수 불특정 일인 제자/자녀의 친구	7(23.3)	결혼 이후		1년미만	16(53.3)	
	6(20.0)			1년이상	9(30.0)	
	3(10.0)	불만족결혼생 활일시도피		남편	4(13.3)	
	3(10.0)			아내	4(13.3)	
4(13.3)	불만족한결혼 생활유지수단		남편	3(10.0)		
5(16.7)			아내	6(20.0)		
접촉 계기 /매체	2(6.7)	혼외관계 유형	불만족한결혼 생활파기수단	남편	5(16.7)	
	25(83.3)			아내	3(10.0)	
	2(6.7)		만족한결혼생 활활력소추구	남편	9(30.0)	
	2(6.7)			아내	2(6.7)	
	1(3.3)					

\*혼외관계유형은 혼외관계 귀인이 부부 모두인 사례가 적용됨에 따라 총30사례를 넘음

부부간 직업과 혼외관계유형을 교차분석하였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의 경우 경제적 수입수준이 높은 '자영/경영'으로 묘사되는 경우에 '자신의 가정생활에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활력소 추구형' 혼외관계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2.5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8〉 부부의 직업별 혼외관계유형

건(%)

혼외관계 유형		직업		회사원		전문직		자영/경영		전업주부		무직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불만족가정생활 일시도피	남편	3 (14.3)	-	1 (4.8)	-	-	-	-	-	4 (19.0)	-	-	-
	아내	1 (6.7)	-	1 (6.7)	-	2 (13.3)	-	-	-	4 (26.7)	-	-	-
불만족가정생활 유지수단	남편	-	-	2 (9.5)	1 (4.8)	1 (4.8)	-	-	-	2 (9.5)	-	-	-
	아내	2 (13.3)	-	1 (6.7)	1 (6.7)	3 (20.0)	1 (6.7)	-	-	4 (26.7)	-	-	-
불만족가정생활 파기수단	남편	1 (4.8)	-	1 (4.8)	-	2 (9.5)	2 (9.5)	-	-	3 (14.3)	1 (4.8)	-	-
	아내	1 (6.7)	-	-	-	2 (13.3)	-	-	-	3 (20.0)	-	-	-
만족가정생활 활력소추구	남편	2 (9.5)	-	2 (9.5)	2 (9.5)	5 (23.8)	1 (4.8)	-	-	6 (28.6)	-	-	-
	아내	1 (6.7)	-	1 (6.7)	-	-	-	-	-	2 (13.3)	-	-	-

\*혼외관계유형은 혼외관계 귀인이 부부 모두인 사례가 적용됨에 따라 총30사례를 넘음

반면 아내는 ‘전업주부’인 경우 ‘불만족스러운 가정생활로부터의 도피 또는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외관계를 갖는 경우가 53.4%로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간과 경제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업주부가 가정 내에서 부정적인 정서로 경험되는 소외감이나 권태로움에 대한 대처기제로써 혼외관계를 선택한다는 Prins(199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 결혼유지기간별 혼외관계유형

건(%)

혼외관계 유형		결혼유지기간			
		1-5년	6-10년	11-15년	16-20년
불만족가정생활일시도피	남편	-	2(9.5)	1(4.8)	1(4.8)
	아내	1(4.8)	3(20.0)	-	-
불만족가정생활유지수단	남편	2(9.5)	1(4.8)	-	-
	아내	3(20.0)	3(20.0)	-	-
불만족가정생활파기수단	남편	1(4.8)	1(4.8)	2(9.5)	1(4.8)
	아내	-	3(20.0)	-	-
만족가정생활활력소추구	남편	2(9.5)	5(23.8)	2(9.5)	-
	아내	-	1(6.7)	1(6.7)	-

\*혼외관계유형은 혼외관계 귀인이 부부 모두인 사례가 적용됨에 따라 총30사례를 넘음

한편 결혼유지기간과 배우자간 혼외관계 유형을 교차분석한 결과(〈표 9〉), 결혼 유지기간이 '1-5년'인 경우 부부 모두 '불만족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혼외관계를 갖는 비율이 30%로 다른 혼외관계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혼유지기간 '6-10년'인 경우는 19사례로 부부 모두에게서 혼외관계빈도도 가장 높았으며, 이 시기의 혼외관계 특성은 부부 모두 네 가지 혼외관계 유형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남편의 경우 '활력 추구'를 위해, 아내는 '가정생활에 불만족'해서 혼외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간 혼외관계유형 차이를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었다.

부부관계 문제 유형별 귀인과 혼외관계 유형을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부 모두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혼외관계 유형에 있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아내는 '불만족 가정생활 유지수단' 유형이, 남편의 경우엔 '만족가정생활 활력소 추구' 유형이 각각 33.3%였다. 이때 드라마에서 남편은 부부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활력소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혼외관계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 문제가 있는 남편의 혼외관계유형은 결혼생활 파기수단인 경우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남편의 부부관계 및 가족에 대한 거부장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6〉의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의 남편역할수행에서 그 문제 유형이 '권력형'에 집중되어 있었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반면 아내의 귀인정도는 남편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이에 관련된 혼외관계 유형으로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도피' 내지 '유지수단'에 집중되어 있어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정서 문제와 의사소통 문제의 대상화됨과 동시에 이들에게 혼외관계가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대처수단이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는 남은주(1998)의 기혼여성의 혼외관계는 정서적 만족감을 구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표 10〉 부부관계문제 및 귀인별 혼외관계유형

건(%)

	구분	불만족가정생활 일시 도피		불만족가정생활 유지수단		불만족가정생활 파기수단		만족가정생활 활력소 추구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성 문제	남편	1(33.3)	-	-	1(33.3)	-	-	1(33.3)	-
	아내	-	-	-	-	-	-	-	-
	모두	1(33.3)	1(33.3)	-	-	-	-	-	-
경제 문제	남편	-	-	2(100.0)	-	-	-	-	-
	아내	-	-	-	-	-	-	-	-
	모두	-	-	-	-	-	-	-	-
정서 문제	남편	2(11.1)	2(13.3)	1(33.3)	1(6.7)	3(16.7)	1(6.7)	3(16.7)	1(6.7)
	아내	1(33.3)	-	1(33.3)	-	-	1(6.7)	-	-
	모두	-	2(13.3)	1(33.3)	5(33.3)	-	1(6.7)	6(33.3)	1(6.7)
의사 소통	남편	1(7.7)	2(22.2)	1(7.7)	1(11.1)	4(30.8)	1(11.1)	2(15.4)	-
	아내	2(15.4)	-	-	1(11.1)	-	-	1(7.7)	-
	모두	-	-	-	2(22.2)	-	-	2(15.4)	2(22.2)

\*혼외관계유형은 혼외관계 귀인이 부부 모두인 사례가 적용됨에 따라 총30사례를 넘음

혼외관계 관련 특성별로 혼외관계유형을 교차분석하면 <표 11>과 같다. 귀인이 남편인 경우는 '불만족 가정생활 파기수단(19.0%)'유형과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만 활력소를 추구(23.8%)'하는 유형에, 아내는 불만족스런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 도피(13.3%)'나 '유지수단(26.7%)' 유형에 주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관계 시점 및 유지기간과 혼외관계 유형의 관계에서는 '결혼 이후 1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63%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 남편은 '활력소 추구'를 위해, 아내의 경우는 '불만족스런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혼외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혼외관계 관련 특성별 혼외관계유형

진(%)

변수	구분	불만족가정 생활일시도피		불만족가정생활 유지수단		불만족가정생활 파기 수단		만족가정생활 활력소 추구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혼외관계 귀인	남편	3(14.3)	-	3(14.3)	-	4(19.0)	-	5(23.8)	-	
	아내	-	2(13.3)	-	4(26.7)	-	2(13.3)	-	1(6.7)	
	남편→모두	1(4.8)	2(13.3)	-	2(13.3)	1(4.8)	1(6.7)	3(14.3)	-	
	부부동시	-	-	-	-	-	-	1(4.8)	1(6.7)	
혼외관계 시작시점	결혼이전	-	-	2(9.5)	-	1(4.8)	1(6.7)	1(4.8)	-	
	결혼이후	4(19.0)	4(26.7)	1(4.8)	6(40.0)	4(19.0)	2(13.3)	8(38.1)	2(13.3)	
혼외관계 유지기간	결혼 이전	1년미만	-	-	2(9.5)	-	1(4.8)	-	1(4.8)	-
		1년이상	-	-	-	-	-	1(6.7)	-	-
	결혼 이후	1년미만	2(9.5)	3(20.0)	-	5(33.3)	-	1(6.7)	7(33.3)	2(13.3)
		1년이상	2(9.5)	1(6.7)	1(4.8)	1(6.7)	4(19.0)	1(6.7)	1(4.8)	-

\*혼외관계유형은 혼외관계 귀인이 부부 모두인 사례가 적용됨에 따라 총30사례를 넘음

이혼 결정 또는 제어 요인인 부부관계에서의 기여도와 친밀감, 혼외관계 유형을 살펴 본 결과(<표 12>), 결혼생활 헌신 여부와 혼외관계 유형에서 성별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결혼생활 헌신 여부에 따른 혼외관계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아내의 경우 결혼생활에 헌신한 아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혼외관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혼외유형별 특성은 남편의 경우 결혼생활에 헌신하지 않을 때 '불만족한 가정생활파기수단'으로 혼외관계를 유지하는 빈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내의 경우는 결혼생활에 헌신적이었을 때 '불만족한 가정생활에서 일시 도피 또는 유지수단'으로 혼외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에서 배우자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믿는 경우 자신의 혼외관계를 배우자가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회복을 추구하다가 더 이상 노력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불만족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혼외관계를 계속 추구한다는 연구(Hatfield, 1978; Brown, 1991; Sprecher, 1998)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표 12〉 결혼생활헌신도 및 친밀감별 혼외관계유형

건(%)

		결혼생활헌신				파괴투자				부부친밀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불만족가정 생활 일시도피	남편	4(19.0)	2(9.5)	-	2(13.3)	4(19.0)	2(9.5)	-	2(9.5)	2(9.5)	-	2(9.5)	-
	아내	2(13.3)	4(26.7)	2(13.3)	-	1(6.7)	3(20.0)	3(20.0)	1(6.7)	-	-	-	4(26.7)
불만족가정 생활 유지수단	남편	1(4.8)	3(14.3)	2(9.5)	-	1(4.8)	2(9.5)	2(9.5)	1(4.8)	1(4.8)	-	2(9.5)	-
	아내	3(20.0)	4(26.7)	3(20.0)	2(13.3)	3(20.0)	6(40.0)	3(20.0)	-	-	2(13.3)	-	4(26.7)
불만족가정 생활 파기수단	남편	1(4.8)	5(23.8)	4(19.0)	-	1(4.8)	5(23.8)	4(19.0)	-	1(4.8)	-	4(19.0)	-
	아내	2(13.3)	2(13.3)	1(6.7)	1(6.7)	3(20.0)	2(13.3)	-	1(6.7)	-	1(6.7)	-	2(13.3)
만족가정 생활 활력소 추구	남편	5(23.8)	8(38.1)	4(19.0)	1(4.8)	6(28.6)	9(42.9)	3(14.3)	-	5(23.8)	-	4(19.0)	-
	아내	-	2(13.3)	2(13.3)	-	-	2(13.3)	2(13.3)	-	-	-	-	2(13.3)

\*혼외관계유형은 혼외관계 귀인이 부부 모두인 사례가 적용됨에 따라 총30사례를 넘음

이혼에 대한 대안을 경제자립, 경제문제해결, 사회생활, 애정파트너확보의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면 〈표 13〉과 같다. 남편의 경우 경제적 자립과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례가 아내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경제적 자립에 대한 자신감’에 긍정적인 남편은 83.3%, 아내는 33.3%에 그쳤다. ‘경제문제해결 자신감’ 역시 남편의 경우 80%가 긍정적이었으나 아내는 26.7%인 8명에 그쳐 이혼 후 아내의 경제적 안정성은 남편에 비해 훨씬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표 13〉 부부별 이혼에 대한 대안

건(%)

변 수	구 분	남 편	아 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자신감	예	25(83.3)	10(33.3)
	아니오	5(16.7)	20(66.7)
경제문제를 해결할 자신감	예	24(80.0)	8(26.7)
	아니오	6(20.0)	22(73.3)
사회생활을 할 자신감	예	23(76.7)	16(53.3)
	아니오	7(23.3)	14(46.7)
애정적 파트너와 안정적 관계를 확보할 자신감	예	14(46.7)	10(33.3)
	아니오	16(53.3)	20(66.7)

이는 본 사례의 분석대상 남편의 경우 1명을 제외한 29명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반면 아내는 76.7%가 전업주부로, 사회경제활동으로부터 배제된 모성역할을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경제적 대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생활 자신감’과 ‘애정적 파트너와의 관계 확보’에서도 나타난다. 남편의 76.7%가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에 긍정적인

사례로 분석되는 반면 아내는 53%만이, ‘애정적 파트너와의 관계 확보’ 사례 역시 남편은 46.7%인 반면 아내는 36.7%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편에 비해 아내의 대안정도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 부부별 주변의 이혼에 대한 태도

건(%)

변 수	남 편	아 내
부정적 시각	7(23.3)	13(43.3)
긍정적 시각	2(6.7)	6(20.0)
영향요인/인물 없음	21(70.0)	11(36.7)

이들 부부의 이혼에 대한 주변의 태도 역시 이혼 결정에 작용하는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고 있다 (Levinger, 1979; 이무영 외, 200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드라마에서도 남편보다는 아내의 이혼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모두 더 높다(〈표 14〉). 아내의 경우 남편에 비해 주변의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자신의 생활사건에 대한 주변의 개입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63.3%가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남편에게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70%로 나타나 큰 대비를 보였다.

〈표 15〉 결혼유지기간·가구구성·자녀발달단계별 이혼청구자

건(%)

이혼청구자		남편	아내
결혼유지기간	1-5	4(13.3)	3(10.0)
	6-10	7(23.3)	9(30.0)
	11-15	4(13.3)	1(3.3)
	16-20	1(3.3)	1(3.3)
가구구성	부부	2(6.7)	1(3.3)
	부부와 자녀	11(36.7)	11(36.7)
	부모·부부·자녀	1(3.3)	-
	부부와 형제	-	1(3.3)
	주말부부	1(3.3)	1(3.3)
자녀발달단계*	기 타	1(3.3)	-
	아동기	12(46.2)	9(34.6)
	청소년기	2(7.7)	3(11.5)

\*자녀발달단계는 무자녀 사례(4사례)를 제외한 비율임

이혼은 부부관계만의 종결뿐 아니라 전체 가족체계의 극단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이혼을 누가 청구하는가의 문제를 부부 및 가족의 특성과 함께 살펴보았다(〈표 15〉). 결혼유지기간별 이혼청구자의 성별분포는 남녀 모두 ‘결혼기간 6-10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보다

아내의 경우 이 시기의 이혼 청구비율이 다른 기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이혼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경제적 안정성이 남편의 경우 결혼 이후에도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시기에 크게 제한받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78.6%) 전업주부인 아내는 경제적 문제 해결정도가 남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은 남편과 같이 경제적 대안이 안정되어서라기보다 지속되는 부부문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구성별로는 남녀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으며 자녀발달단계는 아내에게 좀더 영향을 미쳐 아동기 자녀를 둔 경우 남편보다 아내의 이혼청구 사례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관계 유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성별 분포는 <표 16>과 같다.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아내의 혼외관계 유형이 ‘불만족한 가정생활에 대한 일시도피’(26.7%)로 가장 높았으며, ‘유지수단’(20.0%), ‘활력소 추구’(13.3%)의 순이었다. 남편 자신이 ‘불만족한 가정생활을 파기’ 목적으로 혼외관계를 맺었거나 단순히 ‘활력소를 추구’하려 한 경우가 각각 23.8%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는 아내 스스로가 불만족한 가정생활을 유지 혹은 파기하려고 한 경우가 각각 20%를, 남편이 불만족한 가정생활에 대한 일시도피나 만족한 가정생활을 위한 활력소 추가로 혼외관계를 맺은 경우가 각각 1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은 아내가 결혼생활을 파기할 적극적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아내는 남편이 ‘일시도피’나 ‘활력소 추구’ 등 정서적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유에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16> 혼외관계유형별 이혼청구자

단(%)

이혼청구자	혼외관계유형		불만족가정생활 일시도피		불만족가정생활 유지수단		불만족가정생활 파기수단		만족가정생활 활력소추구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	4(26.7)	2(9.5)	3(20.0)	5(23.8)	-	5(23.8)	2(13.3)		
아내	4(19.0)	-	1(4.8)	3(20.0)	-	3(20.0)	4(19.0)	-		

이혼 청구자별로 이혼대안을 살펴본 결과(표 17) 남편이 경제적 자립능력과 자신감이 있는 경우 이혼 청구빈도가 남녀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자립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이무영 외(2003) 다수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 후 대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남편은 부인이 애정적 파트너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를 하는 비율이 40.0%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남편은 자신의 애정적 파트너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지 20%만 이혼청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는 ‘안전한 선택’을 하면서도 부인의 혼외관계는 애정적 파트너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가 이혼청구자인 경우 남편(33.3%)과 아내(26.7%) 모두 애정적 파트너 확보 가능성이 없어도 이혼 법정으로까지 치닫는 모습은 부부가 다른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7〉 이혼청구자별 이혼 대안

건(%)

이혼청구자			남편	아내
경제자립자신	남편	예	12(40.0)	13(43.3)
		아니오	4(13.3)	1(3.3)
	아내	예	5(16.7)	5(16.7)
		아니오	11(36.7)	9(30.0)
사회생활자신	남편	예	12(40.0)	11(36.7)
		아니오	4(13.3)	3(10.0)
	아내	예	7(23.3)	9(30.0)
		아니오	9(30.0)	5(16.7)
경제문제해결자신	남편	예	12(40.0)	12(40.0)
		아니오	4(13.3)	2(6.7)
	아내	예	4(13.3)	4(13.3)
		아니오	12(40.0)	10(33.3)
애정파트너	남편	예	10(33.3)	4(13.3)
		아니오	6(20.0)	10(33.3)
	아내	예	4(13.3)	6(20.0)
		아니오	12(40.0)	8(26.7)

## 5. 논 의

###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혼외관계와 이를 사유로 하는 이혼연구에서, 주제의 민감성으로 실제 사례에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대안적인 연구소재로서 TV드라마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혼외관계를 사유로 한 이혼이라는 현상을 드라마가 어떻게 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역동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드라마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부관계유형은 초혼의 부부, ‘자영업/경영인’, ‘회사원’ 등의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남편, 그리고 전업주부인 아내였다.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수준도 중류층 이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들의 결혼유지기간은 ‘6-10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부부와 아동기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가족구성은 혼외관계로 인한 결혼관계의 해체위험은 외적 지지체계 없이 전적으로 부부의 내적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부부관계에 내재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부부관계의 질을 결정

하는 정서 및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이혼 혹은 혼외관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부부문제라고 회자되는 성(性)이나 경제문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만성화된 가정 내 역할 기능수행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기술 역시 '부적절한' 수준이었다. 이중 20%이상의 가정은 부부 및 가족 내 역할수행에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그러나 부부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을 포함하는 주변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태도 및 문제해결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 이들은 오히려 문제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혼외관계대상으로는 '결혼 전 애인'이 가장 많았고, 특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대안으로 '빈껍데기 결혼'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사례의 설정 등은 배우자에 대한 불신과 혼전 관계에 대한 의심 등 결혼관계에 대한 기본적 불신을 내재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부 모두에서 결혼 유지기간이 1-5년 이하인 경우는 '불만족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유지기간 5년 이상인 경우는 '결혼관계 파기수단'으로 다양한 혼외관계 유형을 보이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점차 희석되고 만성화된 문제의 해결, 혹은 종결을 위해 결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결혼 7-9년차의 이혼율이 가장 높듯이(통계청, 2003), 이혼예방 노력도 결혼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혼청구자는 부부 모두 '결혼기간 6-10년차'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혼에 대한 대안 중 애정적 파트너 확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혼법정으로까지 치닫는 모습은 부부가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외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한편 결혼 만족도뿐 아니라 불만족 사유 및 혼외관계, 이혼의 전 영역에서 남녀의 성별차이가 두드러진다(이재경, 2000)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드라마에 묘사된 부부는 사회적 역할기능 수행방식, 결혼관계의 헌신, 혼외관계 유형, 이혼청구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있어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부부간 사회적 기능수행에서 남편은 사적 체계인 부부 및 가족 내에서와 다른 대인관계나 직업기능수행에 있어 역할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기존의 가부장적 요소가 가족 내, 부부간 관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사회적 기능 수행 영역별 대처기술에 극단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가족에서는 '무능한 가족구성원 역할'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유능한 혹은 책임 있는 사회적 구성원 역할'로 대비되고 있었으며 아내는 전반적으로 '의존적'이거나 가정을 등한시하고 '사회적 책임감'에 편향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이는 남편에게는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고 가정을 등한히 하는 삶의 모습을 정당화하거나 반대로 사회적 성공 이면에 가정의 희생이 동반한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아내에게는 가정의 희생을 통해 쌓은 사회적 업적의 무의미하다는 현재의 편향된 사고의 반영임과 동시에 이를 강조,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에 대한 헌신의 경우, 남편에 비해 아내의 헌신이 전반적으로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내와 남편의 결혼 헌신정도의 차이는 부부간 기대차이와 보상에 대한 갈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내의 경우 결혼생활에 헌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혼외관계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결혼생활을 파기하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여성에 대한 이중 구속과 가정유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강조하는 설정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에 대한 개입에서도 성차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성인지적 접근이 도입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혼외관계유형을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경제적 수입수준이 높은 ‘자영/경영인’인 남편이 ‘만족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활력소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업주부’인 아내는 현재의 불만족스런 가정생활을 파기하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한 대처수단으로 혼외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정은 남편의 혼외관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부정적 감정을 강화하고 아내의 혼외관계에 대한 시청자들의 동정을 유발할 가능성을 담보한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경우 불만족한 결혼생활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 혹은 대안으로서 혼외관계 모색을 강화하는 효과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부부 모두’가 정서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내는 ‘불만족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편은 ‘가정생활에는 만족하지만 활력소를 추구’하기 위해 각각 혼외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 혹은 가족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편이 좀더 부족하고, 남편과 부인 모두 문제에 대비하였을 때 혼외관계라는 부적절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간 인식의 불일치 및 정서적 문제나 의사소통 문제의 명확한 인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부부 모두에게 접근성이 높은 개입 프로그램이 요청됨을 알 수 있었다. 이혼에 대한 주변의 태도는 남편보다는 아내의 이혼에 대해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 모두가 더 높아, 드라마 자체가 남성의 이혼에 비해 여성의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주변 인물들의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한편 등장인물들은 ‘결혼기간 6-10년’에 남편보다 아내의 이혼 청구율을 월등히 높게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이혼결정요인인 ‘경제적 대안이 안정되어서’라는 맥락보다는 아내의 경우 지속, 심화되는 부부문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발달단계는 아내에게 좀 더 영향을 미쳐서 아동기 자녀를 둔 경우 남편보다 아내의 이혼청구 사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자녀가 더 이상 이혼 억제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한경혜·이정혜, 2002)와는 다르게, 드라마 속에서는 여전히 여성에게 어린 자녀가 이혼의 억제요인 혹은 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또한 남편은 아내가 결혼생활을 파기할 적극적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아내는 남편이 ‘일시도피’나 ‘활력소 추구’ 등 배우자로서 정서적 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따라서 아내의 혼외관계는 이유를 불문하고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남편의 경우는 결혼생활에 만족하면서도 활력소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부부간 신뢰의 근간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남편을 불문하고 부부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혼외관계라는 도피수단을 선택하는 문제해결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대안 마련 여부와 관련하여서 아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편은 충분한 대안 마련을 전제로 하는 ‘안전한 선택’을 하기는 하나 부부 모두 전반적으로 충분한 대안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특히 아내의 경우 경제적 대안 마련이 용이하지 않은 가운데 선택한

이혼은 물론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내몰림'으로 묘사되고 있다. 빈곤의 여성화에 있어서 주요위험요인이 이혼(Holden, 1995)이라는 연구결과와 관련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적 함의

본 연구는 최근의 가족변화 및 혼외관계를 사유로 하는 이혼에 대한 시각과 사회복지실천 및 연구에 다음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TV 드라마가 가족의 일상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가족관계에서의 특정 의식을 각인시키거나 강화하는 매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의 탐색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즉 드라마에서 이혼에 이르는 상황에 대한 묘사는 이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영역뿐 아니라 이혼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환경의 영향 등이 역동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사회복지의 핵심영역인 '환경 속 개인'에 대한 이해에 유용한 연구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혼외관계로 인한 이혼과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한 질적 연구영역으로서의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 혼외관계와 이혼과정에서 경험하는 욕구와 미충족 욕구를 통해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등장인물들에게는 부부관계에 내재된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나 공식적 지원체계가 전혀 없었다. 이는 부부문제는 오직 부부의 내적 역량에 의존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가정문제에 대한 외부체계의 개입에 대한 배타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많은 설정이라 하겠다. 또한 이혼에 대한 충분한 대안 없는 비합리적인 선택 등은 이혼 후 뒤따를 다양한 부적응의 문제를 예견케 하며 이에 대한 예방 혹은 추후 개입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실천의 공식적 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영역에서도 메스컴 모니터링을 통한 대중매체의 적극적 활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중산층으로 묘사되는 등장인물들이 혼외관계 이전에 부부역할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다른 대인관계역할, 직업적 역할간의 불균형과 이에 따르는 문제가 심각하고 만성화되어 있는 것이 실제 가족의 모습에서 크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볼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실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가족을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 차원의 방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공백을 고려한, 사회복지대상에 대한 재규정을 포함하여 실천영역의 확대에 이르는 가족개입모형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재구성할 것이 요청된다.

## 3) 연구의 한계와 제언

본 연구는 TV드라마를 분석함으로써, 드라마분석의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좀더 신중한 결과해석 및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을 기대하면서 다음의 한계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대상인 드라마는 혼외관계를 사유로 이혼에 이르는 다양한 사례들로서 드라마 별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이나 정확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개의 경우 극의 전개를 통해 추정가능하여 분석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코딩을 하였으나 상황적 맥락이 정확하게 묘사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개별사례의 상황적 맥락이 내용분석방법을 채택함에 따라 단편화될 수밖에 없어 맥락의존성이 높은 질적 연구의 의미가 퇴색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적 자료화한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통해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대한 내용설명으로 분석내용이 오히려 불분명해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과다설명을 오히려 자제하는 노력을 하였다.

둘째, 내용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드라마 분석을 하면서 결혼관계의 질적인 측면과 함께 혼외관계의 시작과 경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의 변수 및 변수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의도적으로 많은 변수를 채택하였으며 아울러 각 변수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시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혼외관계를 사유로 하는 이혼의 과정과 역동 파악에 많은 시사점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잉일반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

## 참고문헌

- 공미혜. 2001. “혼외관계의 역동성과 성 정치학”.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2. “기혼여성의 결혼 불만족과 혼외관계에 대한 탐색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0(1): 195-208.
- 김성희. 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 김수정·권신영. 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 41-75.
- 남은주. 1998. “남녀의 외도원인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기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법원행정처. 1982-2002. 『사법연감』.
- 심영희. 1991.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경성. 2001. “이혼의도, 시도 및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97-119.
- 이경성·한덕웅. 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41-64.
- 이부영·이소희. 2003. “이혼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2): 39-61.
- 이영숙·박경란·전귀연. 2000. “교제관계 변질시 나타나는 단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2): 147-159.
- 이재경. 2000. “성별화된(Gendered)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2(2): 81-98.
- 이현승. 1999. “주관적 이혼 사유의 변화-법원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과 문화』 11(2): 73-97.
- 임상사회사업연구회 역. 2001. 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 Karls, J. M. 1994. *The PIE Classification System for Social Functioning Problems*. 서울: 나남출판.
- 임인숙. 2003. “외도영화에 재현된 여성의 욕구와 선택의 변화-‘자유부인’시리즈와 1991년대 이후의 외도

- 영화 비교“. 『가족과 문화』 15(1): 3-33.
- 장정순. 1994. 『왜 이혼 못하는가?: 이혼한 여성들의 건강한 삶 이야기』. 서울: 현민시스템.
-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태연보』.
- 한경혜·이정화. 2002.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9) :161-173.
- 한경혜·강유진·한민아. 2003, “이혼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15(1):77-96.
- Amato, P. R., and S. J. Rogers. 1999. “Do Attitudes toward divorce affect marital quality?” *Journal of Family Issues* 20(1): 69-86.
- Berg, J. H., and R. D. McQuinn. 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942-952.
- Booth, A., and P. Amato. 1991.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2: 396-407.
- Brown, E. 1991. *Patterns of Infidelity and Their Treatment*. New York: Brunner-Mazel.
- Cartensenm L. L., Gottman, J. M., and R. W. Levenson. 1995. “Emotional behavior in long term marriage.” *Psychology and Aging* 10: 140-149.
- Fincham, F. D. and T. Bradbury. 1993.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nd attribution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64: 442-452.
- Glenn, N. 1996. “The recent trend in marital succes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61-270.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Huston, T. L., J. P. Caughlin, R. M. Houts, S. E. Smith, and L. J. George. 2001. “The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237-252.
- Holden, Karen and Pamela Smock, “The economic Costs of Marital Dissolution: Why do Women Bear a Disproportionate Cost?” *Annual Review of Sociology* 17: 51-78.
- Johnson, M. P. 1982. *Social and cognitive features of the dissolution of commitment to relationships*. In Seven W. Duck(Eds.), *Personal Relationships 4: Studying Personal Relationships*(51-73). New York: Academic Press.
- Lawson, E. J. and A. Thompson. 1996. “Black man’s perception of divorce-related stressor and strategies for coping with divorc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17(2): 249-273.
- Levinger, G. 1979.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R. L. Burgess and T. L. Huston(Eds.), *Social exchang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169-193). New York: Academic Press.
- Markman, H. J. 1991. “Constructive marital conflict is not an oxymoron.” *Behavioral Assessment* 13: 83-96.
- Orbuch, T. L., and S. L. Eyster. 1997.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mong black couples and white couples.” *Social Forces* 76(1): 301-322.
- Prins, K. S., B. Bunnk and N. Van Yperen. 1993. “Equity, Normative Disapproval and

- Extra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1): 39-53.
- Rusbult, C. E., and B. P. Buunk. 1993. "Commitment processes in close relationships: An interdependence 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175-204.
- Rusbult.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development (and deterioration) of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heterosexual invest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10): 101-117.
- Seal, D. W., G. Agostineli, and C. A. Hannett. 1994. "Extradyadic Romantic Involvement: Moderating Effects of the Sociosexuality and Gender." *Sex Roles* 31: 1-22.
- Shachkelfor, T. K. and D. M. Buss. 1997. "Cues in Infidel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034-1045.
- Sprecher, S., P. C. Regan, and K. McKinney, 1998. "Beliefs about the outcomes of extramarital sexual relationships as a function of the gender of the 'cheating spouse'." *Sex Roles* 38(3/4): 301-311.
- Tallman, I. and Riley, A. 1995. "Gender role expectations and couple interactions in newly married couples." Unpublished manuscript,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Terri, L. O., V. Joseph, H. Halimah, and H. Julie. 2002. "Who will divorce: A 14-year Longitudinal study on black couple and white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9(2): 179-202.
- Treas, J. and D. Giese. 2000. "Sexual Infidelity among Married and Cohabiting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1): 48-60.
- Veroff, J., E. Douvan, and S. Hatchett. 1995. *Marital instability*. Westport, CT: Praeger.
- White, L. K. 1990. "Determinants of Divorce: A review of research in the eigh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Nov.): 904-912.

## Study on Divorce Caused by Extramarital Relationship : Content Analysis on TV Drama : 「Couples Clinic: Love or War」

Yang, Ok-Kyung  
(Ewha Womans University)

Lee, Ki-Yeon  
(Ph. D. Candidates, Ewha Womans University)

Park, Ji-Young  
(Ph. D. Candidates, Ewha Womans University)

Lee, Hyun-Young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Kim, Eun-Sil  
(Master Students,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V drama describes divorce process by the reason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n the drama. To explore this subject, 30 drama synopses delineating extramarital relationship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most of the couples had difficulties in emotional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The couples relationship was described traditionally patriarchal: husbands showed their authorities and wives showed dependency on their husbands. The partners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were the lovers before current marriage. The patterns of extramarital relationship included 'intention to look for vitality despite satisfying current marriage' for the husbands and 'intention to avoid dissatisfied current marriage temporally' or 'to maintain marriage despite dissatisfaction' for the wives. For those who married 6 years and longer, more extramarital relationship was accepted as a terminator of the marriage. And in many cases, the divorce dose not mean to maintain the relationship with extramarital partner but to collapse of trust in partner.

The results imply that the social work needs to be more sensitive to middle-class couples'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problems. This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work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couples

Key words: Divorce, Extramarital Relationship, Couples Relationship, TV Drama Analysis, Content Analysis

[접수일 2005. 3. 4. 게재확정일 2005. 5. 21.]